

임군의 2번째 기적을 기원하는 선플응원 '재운아 일어나!'

수화여행중 교통사고로 5년째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재운 군을 위한 선플운동본부의 힘찬 응원이 2번째 기적도 만들 수 있을까.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로비에는 힘찬 응원의 목소리와 은은한 음악 선플이 울려 퍼졌다. 재단법인 선플재단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고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재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는 선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대전 우송중학교 학생이던 임군은 2012년 5월18일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관광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다. 사고 초기 '생존 가능성 1%'라는 진단을 받은 임군은 위독했던 임군은 우송중 친구들이 임군의 쾌유를 기원하며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고, 가족들이 '재운아, 일어나서 학교 가자' 등 친구들의 선플을 읽어주자 자가호흡을 시작, 사고 두 달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인공호흡기를 떼게 하고 스스로 호흡을 하게 만든 기적의 선플격려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는 임군을 응원하는 선플이 현재까지도 매일같이 달리고 있다. 누적 개수는 총 1만 100개를 넘었다. 임군은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 말을 걸거나, 평소 임군이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서 '임재운 학생 쾌유 기원 음악회' 큰 호응



선플재단은 임재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는 작은 선플 음악회를 열었다. (선플재단)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면 눈을 깜박인다고 한다. 이에 선플재단은 임군의 의식 회복을 기원하는 '두 번째 기적'을 꿈꾸며 임군이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혼역 스타광장

에서 음악회 장소인 신촌세브란스 어린이병원까지 언어문화 개선과 임재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는 선플걷기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음악회는 KBS 김진희 아나운서가 제능기부로 참여하여 사회를 보았고, 임군이 휠체어에 탄 채로 어머

니와 함께 나타나자 수백명의 선플 운동 참가 학생들이 재운이가 깨어나기를 기원하는 '#WakeUpY'라는 풋말을 든 응원영상 (https://youtube.com/EndAXhKmvG4)을 시작으로 위키드 출연자 윤예담, 선플국제홍보대사 팔레카가수 이사벨, 히든싱

어 아이유 모창으로 유명한 김미현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재운이의 쾌유를 기원하였고, 양재고등학교 희망중창단, 국립국악중학교 연주동아리, 어린이 치어단 '팝콘'이 임군을 위해 준비한 연주와 치어공연으로 임군을 응원했다.

음악회에 앞서 민병철 이사장은 그동안 임군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모은 선금을 어머니에게 전달하였으며 임군의 어머니는 임군의 얼굴을 만지면서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선플 작은 음악회의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임군도 얼굴에서 미세한 움직임의 표정으로 화답하는 듯 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민병철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병원을 찾아서 임군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선플을 응원하면 임군이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군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음악회를 감상했다. 임군의 모친이 "아들이 잘생겼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재운아, 잘 생겼다!"고 외쳐 주기도 했다.

음악회에 함께 한 리우데자제이루 패럴림픽 여자 탁구 은메달리스트 서수연 선수가 임재운군 바로 옆에서 응원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히든싱어' 아이유편에 참가했던 모창 능력자 김미현씨가 임군이 좋아했다는 아이유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국회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상진 위원장, 6억원의 화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SNS 웨이

보의 국제담당이사 제니, 장애인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서수연 선수와 300여명의 선플운동 참여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임재운 학생을 응원했다.

국회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상진 위원장은 "우리 임재운 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도 의식이 확실히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데 쾌유를 바랍니다. 또,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밝아지고 사회의 희망으로 뻗어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플음악회가 성공적이길 바랍니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은 말을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정말 그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부터 좋은 말을 쓰는 운동을 하는데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와 중·고생 300여명은 임재운군을 위한 음악회에 앞서 신촌 스타광장에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까지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걸었다. '착한 선(善)플, 먼저 선(先)플', '당신의 손에 총 대신 꽃을' 등 글씨가 적힌 손팻말로 시민들에게 작은 격려가 모여 기적을 일으키는 선플의 힘을 알렸다.

김민정 기자

한국어 · 한국문화의 세계적 가치 확산 팔 걷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영국 런던 올림피아 홀에서 개최되는 '2016 런던국제언어박람회(Language Show Live 2016)'에서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한국어 · 한국문화(Enjoy Korean Language & Culture)'를 주제로 한글관을 운영했다.

런던국제언어박람회는 페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실, 일본국제교류재단 등 자국어 보급기관과 캄브리지 대학교, 카디프 대학교 등

영국 명문대를 포함한 16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해 언어 관련 콘텐츠를 세미나, 전시, 공연 등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언어 · 문화 행사이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이하 재단)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글관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한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

계적 가치를 소개한다.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한글을 소재로 한 디자인 상품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과 산업화된 한글을 비롯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생생하게 선보였으며 이와 함께 한글과 한국어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온 · 오프라인 콘텐츠도 제공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한글 디자

인 상품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글 창 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으로서 생활 속에 녹아든 한글을 엿볼 수 있는 가방, 그릇, 엽서, 그림책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한글관에서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의 열풍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에

맞춰 한국어 교재와 다양한 한국어 학습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국의 대표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글관 운영 행사의 일환으로 14일에는 기초 한국어 배우기 강좌와 가요 공연을 마련해 런던 국제언어박람회에 방문하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는 참가자들이 한글을 비롯한 한국어 · 한국문화를 눈과 귀, 손으로 직접 체험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해외 한국어 학습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 기자

문체부, 런던국제언어박람회 한글관 운영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여행!



국립국어원 1층의 우리말 썬플터 모습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말 체험 공간인 '우리말 썬플터'를 10월 17일(월)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하여 강서양

천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장,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춘해 센터장 등 청소년 교육 관계자,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 260㎡ 넓이로 국어원 1층에 새로 조성한 '우리말 썬플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이 우리말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알아보고, 자신과 주변의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특히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좋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4면에 계속)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헨들 개발」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통격높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선플재단과 함께 '청소년의 날' 행사 활짝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념식 함께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9월 24일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시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병주 광명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 박상길 교육장, (재)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등 시민, 청소년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광명시가 '한 5,000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꿈을 만드는 청소년'을 지지하는 의미로 9월 24일 제정된 '광명시 청소년의 날'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기념식에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을 선정, 효행, 근로, 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해 청소년상을 수여했다.

더불어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이 진행돼 청소년, 부모, 교사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선플운동을 알렸다. 이어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과 선플창년포럼 정은재 회장의 '청소년 선플', '청소년 건강'이란 주제의 강연도 진행됐다.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교수시절 2007년 1월, 유명 여가수였던故 유니가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을 보고 선플달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날 강연에서 "악플의 폐해는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통

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에 긍정에너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선플재단에서는 '소망을 말해봐, 응원할게!'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을 응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취미·여가·학습 활동과 수련·교류·문화 활동을 제공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6099㎡의 규모로 음악 연습실, 창작실, 댄스 공연 연습실, 북 카페, 진로체험실, 영상미디어센터, 요리실습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명시 내외에 있는 여러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유관 시설을 연결하는 청소년 활동의 거점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특정일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의 날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의 정의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맞추어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일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며,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다.

민누리 기자

장애인을림픽 은메달 서수연도 함께 하다

임재운군의 기적을 바라는 선플 음악회 이모저모



지난 15일 선플재단 행사장에서 임재운 군을 만나 격려와 응원을 하는 서수연 선수의 모습

지난 15일 선플재단은 '임재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는 선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 임군과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함께 한 장애인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서수연 선수는 12년전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심의와 좌절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메달리스트가 됐다.

12년전 의료사고 딛고 탁구로 불굴의 의지 보여 선플홍보대사 되기로

탁구를 치다보면 팔에 힘이 풀려 라켓이 떨어지기 일상이어서 손에 탁구 라켓을 테이프로 묶고 시합에 임한다는 서수연 선수는 다치기 전에는 슈퍼모델이 꿈이었던 만큼 아직도 뛰어난 미모를 보이고 있으며 고난을 딛고 불굴의 시간을 녹여낸 성숙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서수연 선수는 임재운군의 쾌유를 기원하는 선플음악회에서 임군의 손을 잡고 임군의 어머니를 보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선한 댓글로 격려하는 선플운동이 이렇게 사회를 감동시키는 것을 직접 보면서 선플 홍보대사가 되기로 하였다.

서수연 선수의 어머니는 "딸이 12년전

은 성과를 냈다 함께 이런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선플교사협의회 윤상용 부회장은 "임재운군의 장기치료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한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동의 따뜻한 진료에 무척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다른 대형병원들은 장기치료를 자들 무척 부담스러워했으나 2개월마다 이동을 권유받았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마든지 입원해서 치료받으라는 말을 듣고 참으로 든든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장인 이상고 부장은 "저희 병원 설립 이념에 맞게 임재운군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응원단 레드엔젤 박재현 단장은 "우리 레드엔젤은 1년 365일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단체"라며 "오늘 임군의 쾌유와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해온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을 응원하겠다"며 민병철 이사장의 손을 잡고 힘이 실린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영 기자

선플재단, 호박패밀리 외식기업 1호 '선플운동 실천협약' 체결



왼쪽부터 세 번째 호박패밀리 김치현 대표, 네 번째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호박패밀리(대표 김치현)는 9월 23일, 선플재단 회의실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및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박패밀리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악플을 다는 대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소망을 적고, 다른 네티즌들이 서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소망을 말해봐, 응원할게' 캠페인과 청소년들이 선정하는 '진절선플

가게' 응원캠페인을 후원하게 된다. 선플재단과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한 호박패밀리는 숯불구이 전문점 호박식당을 시작으로 숙성 등심 전문점 한와담, 양고기 전문점 양파이, 치킨전문점 찰리스치킨, 카페 펍킨, 싱글 몰트 위스키바 에이치에비유, 실내포장마차 만식이네, 미국 현지법인 호박식당 라스베가스점 등 8개 브랜드, 2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전문 기업이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사이버상의

악플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 및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선플운동에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가 확산되면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박패밀리 김치현 대표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청소년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선플운동을 알게 되어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과 네티즌이 선플운동에 참여하여 서로 응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민병철 교수가 2007년,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6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00만개를 넘어섰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태 기자

김해신안초 '희망 토스' 배구 동아리 인터넷 권리 침해 예방 캠페인

김해신안초(교장 이윤옥) 교사들로 구성된 '희망 토스' 배구 동아리가 지난 9월 10일 김해체육관에서 개최된 김해시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에 참가하여 멋진 경기와 함께 인터넷 권리 침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해신안초 배구 동아리 주전 9명은 60대 2명, 50대 3명, 30대 30명, 20대 1명으로 평균연령이 47세로 참가한 팀 중 가장 고령이었는데, 다른 20대, 30대로 구성된 젊은 배구동아리와 멋진 경기를 펼쳐 6강에 올랐다.

또한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배구도 열심히 하였지만, 경기 중간 중간 기다리는 시간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권리 침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배구대회에 참석한 조철민 선수는 배구 대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처음인데, 선생님들이 캠페인 하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면서 역시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축사를 위하여 참석한 김해를 선거구



김해신안초 '희망토스' 배구동아리가 9월 10일 김해시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에 참가하여 멋진 경기와 함께 인터넷 권리침해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선생님들의 캠페인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 권리 침해 예방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박현성 교사는 "배구를 통해 교직원들이 화합하고, 그 화합

의 기운을 우리 사회에 긍정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였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이런 캠페인을 더 요구하는 모습에 앞으로 더 많은 긍정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태 기자

울산시교육청, 권역별 선플 릴레이 캠페인 펼쳐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에 중점

울산시교육청과 선플학부모지원단(회장 정귀순)은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3개 권역 8개교를 대상으로 선플 릴레이 캠페인 및 2016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 공모 수상작을 전시한다.

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은 해당학교 선플학부모지원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청으로 18일 성안중, 20일 명덕초, 25일 문수중 등 3개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 8개교를 순회하며 등굣길에 선플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플학부모지원단의 캠페인은 2016 언어·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공모전 포어, 포스터, 디자인 부분의 수상작 15편이 전시된다.

또 선플 리플릿 배부를 통해 선플운동을 홍보하며 '한 줄의 선플이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로 거울, 밴드, 풍류지 등의 홍보물 배부와 선플매지 만들기, 감사편지 또는 감사문구 쓰기 및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플달기 연수를 희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지해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플달기 운동은 상호·존중·배려 등 긍정적 사고 전환으로 인성교육 및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울산시교육청

한글 창제 570돌,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 열려

황 총리, “잘못된 언어문화 개선위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추진 중”

한글 창제 570돌을 맞아 한글날 경축식이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를 주제로 9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축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정당 및 사회각계 대표, 한글 관련단체, 주한 외교관, 학생,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글을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도 초청되었다.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의 훈민정음 서문 봉독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10명을 한글 발전 유공자로 포상했다.

경축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지 오백 일흔 돌이 되는 매우 자랑스러운 날로 한글날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축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한글 근대화의 개척자이신 주시경 선생의 탄생 14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글은 지금 지구상에 사용되는 많은 문자 가운데서도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강조



한글 창제 570돌을 맞아 한글날 경축식이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를 주제로 9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했다. 황 총리는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하다. 한글은 창제 이후 오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의 정보화 시대에도 잘 맞는 문자로서 정보통신 강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한 한글은 디자인의 소재로 사랑받는 등 예술과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저는 지금 한글로 디자인한 넥타이를 매고 있다.”고 소개하고 “오늘 경축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한글 디자인의 넥타이를 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디자인인가. 한글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발굴하여 널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올바른 언어문화는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여주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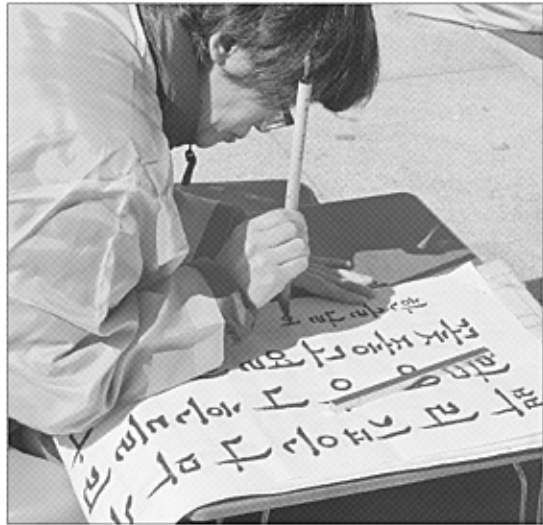
황 총리는 일부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적지 않아 정부는 잘못된 언어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데 국민들의 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세계 속에서의 한글의 위상과 관련, 황 총리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해외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

으며, 세계 57개국 140여 곳에 개설한 세종학당에서도 매년 4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글공부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말과 글을 익히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글날을 맞아 이날 문화문광장에서는 화호쓰기 대회, 관현악 연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전래동화 뮤지컬과 전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중앙에서의 경축식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외국인 대상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등 50여 개 행사가 펼쳐진다.

- [한글 유공 포상자 명단]
- 육관문화훈장 : 고 서정수(장남 서영환)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화관문화훈장 : 이기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문화포장 : 두르스 빈첸차 이탈리아 베니스 카 포스카리대학교 교수, 장바오우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 근정포장 : 육철영 울산대학교 교수
- 대통령 표창 : 임 엘비라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 북미한국어교육자협회(단체)
- 국무총리 표창 : 오동춘 전 한글학회 감사, 허삼 카타르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원 원장, 경상북도 문경시(단체)

은동기 기자



제570돌 한글날 맞이 다양한 행사 이모저모

경상대 국어문화원에서 한글날 다양한 행사 마련

경상대(총장 이상경)는 제 570돌 한글날을 맞이해 국어문화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글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진주성 안 국립진주 박물관에서 세종 나신 날 기념 어린이 한글 사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한글 배지 만들기(진주박물관 감각체험실), 세종대왕께 편지쓰기(진주박물관 감각체험실) 행사를 진행했다.

국어문화원은 '한글 배지 만들기'와 '세종대왕께 편지 쓰기' 두 가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한글 엽서를 제공하고, 체험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사람들에게는 한글 수건을 증정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진주시 대안동 차 없는 거리에서 경남 우리말 가꿈이 한글날 큰 잔치 '안녕! 우리말' 행사가 열린다. 경남 우리말 가꿈이는 '나만의 한글 팔찌 만들기' '공공언어 바로쓰기 홍보 활동' '순우리말을 찾아라!' 행사를 마련하였다.

(사)유교문화보존회 훈민정음 해례 목판 복각사업의 1차분 봉정식

570돌 한글날을 맞아 9일 경북안동(사)유교문화보존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릉에서 훈민정음 해례 목판 복각사업의 1차분 최초 인출본을 봉정(문서나 문집 등을 받들어 올림) 하는 고유제를 개최했다. 고유제에서는 헌작과 고유문 낭독으로 안동시와 훈민정음 인연을 밝히고 복각 취지와 경과도 알릴 예정이다. 봉정된 인출본은 고유제가 끝나면 청와대에 증정한다.

유교문화보존회는 10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는 해례본 간송본을 정본화하고 이를 목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려고 안동시 지원으로 훈민정음 해



례본을 찍을 때 사용한 목판을 다시 만드는 사업을 5월부터 벌여왔다.

군포문화재단 '세종대왕, 한글로 노래하다' 공연 등 행사

군포문화재단은 9일 제570돌 한글날을 맞아 다채로운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에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정기공연 '세종대왕, 한글로 노래하다'를 진행하였다.

공연은 한글날을 맞아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세종대왕의 여민동락(與民同樂) 정신을 이어받고 훈민정음의 창제를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숙명여대 김경희 교수의 지휘하에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창작관현악 '뿌리 깊은 나무' 연주와 서정민, 주민지 등 젊은 소리꾼들의 공연은 한글창제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배경으로 색동어머니회의 구연동화 '구렁덩덩 신선비'가 박진아 아티스트의 샌드 애니메이션과 어울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뿐만 아니라 공연 전에 시민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풍경채 만들기, 국악동요 배우기,

국악기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한글날에 대한 감동을 몸소 겪을 수 있었다. 군포시여성회에서는 늦은 나이에 뛰놀게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한글교실 수강생들의 시와 전시회가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군포시여성회관은 전시회와 함께 작품들을 엮은 문집 '소풍'을 함께 발간해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는 '한글, 날아오르다' 전시회가

14일까지 진행됐다. '한글, 날아오르다' 전시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제5회 평생학습축제에서 시민들이 제작한 '한글사랑 전통한지 연' 60여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글날 특집, 영재발굴단에서는 맞춤법 영재 '한글 똑똑이를 찾아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지 570주년! 영재발굴단에서는 한글날 특집, 맞춤법 영재 발굴 프로젝트 '한글 똑똑이를 찾아라'를 마련했다. 역대 100명이 넘는 출연자 중 한글 사랑, 나라 사랑, 언어 사랑이 남달랐던 7살 영재들이 출연해 '어른이지만 한글에 다소 서툰' god 박준형, 이지혜, 단딘 등과 함께 받아쓰기부터 맞춤법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냈다. 산봉우리 vs 산봉우리, 송골송골 vs 송골송골 등 헛갈리는 맞춤법 문제에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98%가 오답. 연예인들 역시 정답률은 0%를 기록, 눈길을 끌었다.

반면 출연한 영재들은 세종대왕도 놀랄 만큼 탁월한 맞춤법 실력을 자랑했는데, 심지어 맞춤법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박준형과 단딘을 위해 즉석에서 1대 1 맞춤법 강의까지 펼치는 등 뛰어난 한글 실력을 보여줬다.

김민정 기자

한글날 맞아 '떡찌니' '산들담은' 등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문체부장관상-떡찌니, 특허청장상-산들담은, 국립국어원장상-자연바라기등

정부는 570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우수 상표 50건을 첫 선정 발표했다.

이 행사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이 협조해 부처 간 협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어 또는 국적 불명의 용어가 사용된 상표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말 우수 상표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가면서도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에는 총 268건의 상표가 응모됐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기초적 요건 심사를 통해 1

차로 145건이 선별됐다.

이후 국립국어원의 내·외부 국어전문가 심사위원 3명이 규범성과 참신성 등 6개 기준으로 평가해 총 50건을 선정하고, 이 50건에 대해 누리꾼 선호도 투표(총 1,044명 참가)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평가와 누리꾼 투표 점수를 합산해 50건의 순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문체부가 특허청, 국립국어원과 함께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순위 확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7건의 상표를 우리말 우수 상표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로는 '떡찌니'가,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로는 '산들담은'이 각각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로는 '자연바라기'와 '생각터트리기', '따뜻한 시선', '아이신나라', '다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말 우수상표에 대한 시상식은 한글날을 이틀 앞둔 10월 7일에 진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구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요즘,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을 함으로써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언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말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자기소개서', '보고서·공문서 쓸때' 국어 어려워

10월 9일 한글날 맞아 설문조사 90% 이상이 스스로 국어공부 필요 답변 눈길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2,381명을 대상으로 '국어 자신감과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에 이르는 92.6% 10명중 9명의 응답자가 '스스로 국어 공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중에 92.2%, 대학생 중 91.8%, 구직자 중에는 93.7%가 스스로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국어사용 중 어려움을 겪었던 적 있다'는 응답자도 61.2%로 과반수이상에 달했다. 이들이 겪었던 국어사용이 어려웠던 경우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나 '보고서/기안서/기안서 작성할 때'로 드러났다.

특히 직장인 중에는 49.5%, 약 2명중 1명이 '보고서/기안서/공문서 작성할 때

국어사용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대학생 중에는 46.3%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를 꼽았고, '보고서 작성할 때'라고 답한 응답자도 3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직자 중에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38.2%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국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그리 높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 정도를 꼽았다.

'100점 만점 중 스스로의 국어실력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0점이상'을 꼽은 응답자는 14.2%로 10명중 1명에 그쳤다. 가장 많은 응답자(43.7%)가 '70점이상 90점미만'을 꼽았고, 이어 '50점이상 70점미만'을 꼽은 응답자가 34.4%에 달했다.

본인의 국어실력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휘력이나 맞춤법 등의 국어 문법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35.2%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논리/추리/비판능력(30.0%) ▲국어 문법(교양) 지식(28.1%) ▲창의적 언어능력(25.9%) ▲쓰기 말하기 등의 표현 능력(15.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독서'로 응답률 64.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는 ▲신문 꾸준히 읽기(32.3%)나 ▲초·중·고교 때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기(31.4%) ▲일기/블로그 등 단문이라도 글을 자주 써보기(20.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경 기자

혼자 읽기 어려운 고전, 해설과 토론 통해 함께 읽어요

문체부, 토론형 집단독서프로그램인 '고전인문학당'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전국 33개 도서관에서 동서양의 고전을 주제로 한 집단독서프로그램 '고전인문학당'을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와 함께 시범 운영한다.

'고전인문학당'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예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동서양 고전을, 분량을 정해 미리 읽어 온 후에 강사에게 해설을 듣고 서로 토론하며 현대적 의미를 찾아가는 집단독서프로그램이다.

'고전인문학당'은 기존 강사 중심의 일회성 인문 강연과 달리, 한 권의 고전을 8주만에 걸쳐 완독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연스럽게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문단체 및 독서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인문학을 전공한 은퇴 교수, 시간강사, 연구자, 저술가 등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인문 활동이 가능한 인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였는데, 1991년부터 대구에서 독서 동아리 '파이데이아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 신득렬 전 계명대 교육철학 교수도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인문고전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는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한다.

신 교수는 "파이데이아 독서토론편식은 강의 위주가 아니라 '해석적 질문'을 통하여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공동으로 탐구한다. 이 방법은 고전을 편향된 시각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며, 참여자들이 스스로 탐구함으로써 고전에 담긴 가치들을 내재화하게 된다. 도서관 밖의 성공적인 인문독서 사례가 도서관에서도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언어진흥과' 신설

시청각 장애인 소외방지 않고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특수언어(수어, 점자) 정책을 전담하는 기능이 보장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권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수언어진흥과'는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 안에 신설되며,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2부(실) 6과 체제에서 2부(실) 7과 체제로 재편된다.

'특수언어진흥과'는 '한국수화언어법'(16년 8월 시행)과 '점자법'(17년 5월 시행)에 따라 한국수어와 점자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대용량 한국수어 영상 자료와 한국수어사전을 구축하는 등 특수언어

정보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수어 전문용어 표준화, 한국점자 규격 표준화 등을 통해 특수언어의 보급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언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국수어 및 점자 문화화과 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 소통 환경과 국어 능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자부와 문체부 두 기관 간의 협업을 이루어낸 이번 기능 개편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의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적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함께 시청각 장애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 기자

국립국어원, 청소년을 위한 '우리말 꿈터' 10월 17일 개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언어인성프로그램 함께 운영



'우리말 꿈터' 개관식 모습

(기사 1면에서 계속) '우리말 꿈터'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전을 주제로 한 '도전! 사

전 탐험대'에서는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사전을 활용해 십자말풀이를 해 보고 자신만의 낱말 뜻을 이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우리말을 주제로

한 '출발! 우리말 여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알아맞추어 보고, 지역 방언으로 개사한 노래를 작은 노래방에서 불러 보며 각 지역 방언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안녕! 우리말'은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높임말과 인사말 바르게 고쳐 보는 체험, 인터넷에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체험,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엮어서 전하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도 우리말 지키기!'는 소중한 우리말을 주제로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보기, 우리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직접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에 문의하기, 띄어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몸으로 뛰는 게임으로 익혀 보기와 같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말 꿈터'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우리말 꿈터'를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 언어 인성 프로그램(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는 국립국어원이 2015년에 개발한 언어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배려와 긍정의 소통 문화를 고민해 보는 활동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과 문화 공연 행사가 매월 1회씩 열릴 예정이다. '우리말 꿈터' 체험은 무료이며, 체험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자세한 안내와 참여 예약은 국립국어원 누리집(국어·한국어 교육) 우리말 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 기자

지난해 신조어로는 반퇴시대·헬조선·여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 국립국어원 자료분석

'반퇴시대'가 2015년 신조어로 꼽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 받은 2012~15년 신조어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신조어로는 반퇴시대·헬조선·여혐 등이 꼽혔다.

반퇴시대는 "조기 퇴직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 하는 시대"를 뜻한다. "반퇴 시대에는 퇴직 전까지 노후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고단한 삶을 피하기 어렵다" 등의 의미로 쓸 수 있다.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길에서 시간을 버린다는 뜻의 길국장, 길과장도 신조

어 목록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새로 생긴 지방 혁신도시에 사느라 도시에서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일컫는 '혁신기러기'라는 단어도 있었다.

신조어 중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빗댄 말이 많았다. 대표적인 말이 문송하대(문과라서 죄송)를 줄여 이르는 말, 인문계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 인구문(인문계 졸업생의 90퍼센트가 논다)을 줄여 이르는 말, 지어인(지방대 출신의 여자 인문대생)을 줄여 이르는 말) 등 취업에 관련된 단어들이다.

실제로 지어인은 4.13 총선 당시 정은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들고 나온 구호이기도 하다.

역세권의 의미가 변형돼 사용되는 신조어도 눈에 띄었다. 맥도날드가 배달되는 역세권은 맥세권으로, 숲이 근처에 있는 곳은 숲세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만을 우선시하는 부모의 이기주의에 반발하거나 아이와 동행하지 않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영유아나 아동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카페나 음식점'이라는 뜻을 담은 '노키즈존'이나, 나+쓰레기의 합성어인 '나레기'라는 단어도 있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작된 것 같은 놀이지역의 재미있는 단어도 눈길을 끌었다. '겨터파크'라는 신조어는 겨드랑이와 워터파크의 합성어로, '겨드랑이에서 흥건하게 나는 땀을 워터파크에 빔터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끝난 강제는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커서 허리에서 골반까지의 선이 예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여자지자하다(아주 여성스럽다), 썰과 만화를 합성한 '썰만화(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소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라는 단어도 있다. 셀카를 잘 찍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셀카고지라는 단어도 신조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염 의원은 "신조어는 동시대 한국사회에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악플 추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 선플캠페인 정기 기부

3천원의 행복 선플 나누기

후원금은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선플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 모바일 결제
 - * 금액: 3천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
 - * 다음의 URL을 누르면 후원참여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40-011-456034(선플재단)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100만 어휘 수록 진화한 새 국어사전 나온다

국민이 직접 참여 우리말의 쓰임과 현상을 담아 내어 다양한 활용 기대

국립국어원 10월 5일 '우리말샘' 정식 개통

다. 예를 들어 일상어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꽃청춘' '힐링하다' '그루밍하다'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인 샘이다.

또 '우리말샘'에는 뜻풀이·예문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규범 정보, 삽화·사진·동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문화 정보도 담겼다.

'우리말샘'은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위키피디아'식(식) 사전이다.

일반 참여자는 '우리말샘' 웹사이트 가입 후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첨삭한 정보는 표현·표기 감수를 거쳐 사전에 올 수 있고 '참여자가 제안 정보', 이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감수 후에는 '전문가 감수 정보'로 표기된다. 또 이 결과는 다른 사

용자에 의해 재수정될 수 있다.

포함·자모·초성·정보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도 갖췄다. 관련 어휘들이 그물망처럼 표시돼 어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휘 지도 기능과 개인별 단어장, 작은 참 사전 기능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샘'과 함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도 내놓는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린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하고, 어휘별로 사진·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 수요를 고려해 미래 한류의 동력이 될 10개 언어(영어·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스페인어·아랍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타이어·프랑스어)로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이중 언어와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 문화를 고려해 번역했고, 외국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여건에 맞춰 외국어별 화면 자판 기능, 글자 중심의 화면을 구현했다.

2010년 추진돼 올해까지 정부 예산 220억원이 투입된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외 학습사전'의 정보는 민간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저작권을 개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전 자료 개발 지원(오픈 에이피아이, Open API)을 할 계획이다.

송철호의 국립국어원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우리말의 쓰임과 현상을 담은 '우리말샘'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다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보물창고로 되길 바란다"며 "정부3.0에 따라 누구나 사전 정보를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축적의 기제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직장인 60.3% '직장 내 은어 사용' 조사 발표

직장인 5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어는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한글날을 앞두고 직장인 1,73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어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의 60.3%가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어(*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는 ▲특정

직업, 업무에 대한 전문용어가 61.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40.8%)가 차지한 가운데 ▲특정인을 지칭하는 별명(39.5%)이 근소한 차로 그 뒤를 쫓았다. ▲인터넷 용어/비속어를 사내에서 사용한다는 응답도 21.7%로 적지 않았으며, '진상 고객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말' 등 ▲특정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17.2%)를 은어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용하는 외국어가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 직장인의 84.8%가 '우리말로 쓸 수 있는데도 외국어로 쓰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굳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28.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또 '익숙하고 편해서(19.0%)', 한글로 길게 쓰는 것보다 약어로 줄여 사용하기가 쉬워서 등의 '편의성(18.9%)' 외국어를 쓴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좀 더 전문적으로 보여서(11.4%)', '우리 말로는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워(10.0%)', '미묘한 어감 차이 때문에(7.2%)' 등도 한글 대신 외국어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경 기자

소수서원 선비 기운으로 인성교육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주·안동 등 선비문화코스 육성·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방문과 8월 서산 버드랜드 및 인천 월미공원 방문에 이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소수서원과 선비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함께 둘러보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은 방문이 됐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소수서원의 '선비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인들의 인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선비인성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노력을 당부하기

도 했다.

영주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로 임금(조선 명종)이 이름을 지어 내린 사액 서원으로 수많은 유학자 배출은 물론 방대한 자료가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소백산 등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당시 조선 선비의 정갈한 기운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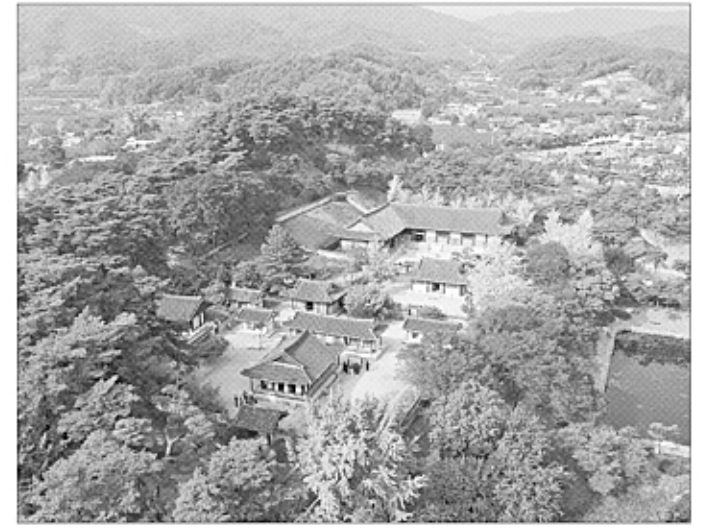
소수서원에 인접한 선비촌은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복원하여 생활상을 재현한 선비문화 체험테마파크로 한옥스테이와 예절교육, 전통혼례,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와 안동 등이 포함된 선비문화코스를 대표적인 "대한민국 테마여행코스"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우리나라 2~4개 지자체를 묶어 3일내지 5일 이내의 대표 코스를 선정해 현장직단, 컨설팅,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 등 종합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서울과 제주 위주의 관광수요를 우리나라 전역으로 분산한다는 중앙정부의 국정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주·안동 등 선비문화코스를 글로벌 관광코스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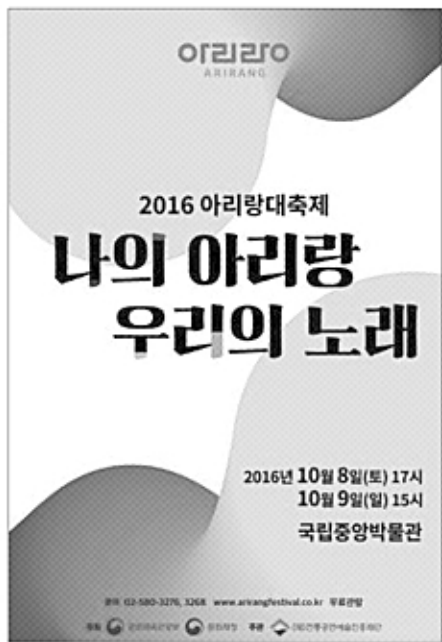
서주필 기자



영주소수서원 정경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소수서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리랑' 고유 뿌리문화의 축제 한마당 눈길

문체부, 가을하늘 수놓은 '2016 아리랑대축제' 활짝



이봉근, 류근화가 아리랑의 역사를 보여주며 소프라노 정혜옥, 피아니스트 박종화, 무용가 성창용의 무대를 통해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의 상징인 아리랑을 형상화하였다. 그 다음의 하림, 비버렛츠, 라퍼커션 등이 펼치는 무대에서는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아리랑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열정과 꿈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나의 아리랑, 우리의 노래'라는 공연 제목이 말해 주듯이 현재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아리랑의 의미를 바탕으로 장르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아리랑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10월 9일(일) 같은 장소에서는 아리랑의 뿌리이자 모체인 지역아리랑을 조명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한민족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아리랑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산재하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아리랑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지역아리랑공연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아리랑을 감상하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아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리랑보존회 7개 단체가 출연한 공연은 8일(토) 공연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감동을 선사하였다.

10월 8일(토)과 9일(일) 양일간 국립중앙박물관 내 겨울꽃 주변에서는 '아리랑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 체험행사에서는 아리랑 음악 감상과 아리랑 그래픽티, 전통문화 체험, 소규모 거리공연 등, 아리랑을 주제로 다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 현장에 찾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16 아리랑대축제'는 아리랑에 대한 새로운 음악적 접근과 함께 공연 주제에 대한 시각적 표현, 이야기(스토리) 콘텐츠 등을 활용해 기존 아리랑공연들과 차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민요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아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아리랑이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 기자

아름다운 우리 노래 '아리랑'이 10월의 청명한 가을하늘을 수놓으며 울려퍼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이하 문체부)는 오는 10월 8일(토)과 9일(일) 양일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2016 아리랑대축제'를 개최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손혜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리랑콘서트 '나의 아리랑, 우리의 노래'를 중심으로 지역아리랑 공연과 다채로운 아리랑 체험행사로 구성되었다.

'나의 아리랑, 우리의 노래'는 10월 8일(토) 오후 5시 열린마당에서 열렸으며, 80인조 오케스트라의 장대한 선율을 위로 전 통과 클래식을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 공연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성시연)와 대중적인 감각의 작곡가 이지수가 함께 만들어 내는 아리랑을 배경으로 국악명인 이춘희와 다음 세대를 잇는 젊은 국악인 민은경,



아리랑 대축제 무대

문체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자 '한복의 날' 행사

경복궁 흥례문 광장서 10월21~22일 한복패션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센터장 최정철)가 주관하는 '2016 한복의 날' 행사가 10월 21일과 22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한복의 날'은 199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복문화 축제로서 올해는 선포 20주년을 맞이해 '한복 르네상스 -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한복 패션쇼와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2일 저녁 7시에는 '한복의 날' 공식 기념식과 메인 한복 패션쇼에서는 조운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최정철 한복진흥센터장 등 한복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한복 디자이너, 주한외교사절단 등 국내외 주요 귀빈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한 한복인상' 시상식과 '한복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한복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한복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올해의 '장한 한복인상'은 40년간 줄곧 한복만을 연구해온 엄숙희 선생에게 수여됐다. 또 한복이 잘 어울리는 유명 방송인이 한복 홍보대사로 참석하였다. 한복



홍보대사는 위촉 이후 1년 간 한복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복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21일과

22일 양일간은 참관객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혜택들도 제공되었으며 22일 오후 4시부터는 한복 달빛마당에서, 신진 디자이너의 등용문인 한디자이너공모전의 본선작 38점을 만나볼 수 있는 패션쇼가 '한복, 키포푼이 되다'를 주제로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한복 별빛마당에서는 '케이-리본 셀렉션(K-Ribbon Selection)'으로 선정된 우수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기념사진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된다. 첨단 전시 시설인 '테크놀로지 지테이너(G-Tainer)'를 활용한 아티 전시장 '한복 트렌드관'에서는 최신 한복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추진한 한복개발프로젝트, 한복 협업(컬래버레이션) 사업 등 중요 사업의 성과를 전시하였다.

조운선 문체부 장관은 "한복은 그 누구라도 넉넉하게 품는 인간주의 미학을 담은 옷으로서 오늘날의 현대인과 세계인 모두가 극찬하는 우리 고유의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복의 날'이 한국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차세대 한류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한글의 따뜻한 응원, 선물!

한복패션쇼가 함께합니다.

HOBAK FAMILY

초박식당
이키나구 외국인몰점
02.798.7905

한와담
한우 속성 중심 전문점
02.749.7905

Yangpai
양꼬치 양꼬치 전문점
02.794.1105

Charlies CHICKEN
Limited Chicken Service
02.2236.7905

Pumpkin
다저푸드디너스 카페
02.733.7905

문체부 올해의 우수도서관 45곳 시상

서울 이진아기념도서관 · 대구 경동초등학교 등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위원회)가 26일(수)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올해의 우수도서관 45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전문·병영·교도소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해 우수도서관을 선정해왔다. 2016년도 도서관 평가에는 2,742개관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년도 2,283개관 대비 참여율이 20% 증가한 것이다. 올해 우수도서관은 5개 관종, 5개 영역별 90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평가위원회 심의 등 4단계 평

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개, 국무총리 표창 8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3개, 문체부 장관 표창 29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 3개로서, 총 45개관에 7,0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2016년 최우수 도서관, 서울 이진아기념도서관과 대구 경동초등학교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기관으로는 서울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이하 이진아도서관)과 대구 경동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진아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서정책을 개발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자기 선택적 인문·독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소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공공도

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꿈모텔 선정을 통한 진로독서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체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에 기여해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관으로는 공공도서관 부문의 경남 김해도서관과 서울 서대문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중국 문화체육센터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등 5개관, 학교도서관 부문의 경기 성남장안초등학교, 양명중학교 등 2개관, 병영도서관 부문의 공군 교육사령부가 선정되었다.

◇ 위원장 특별상 신설, 도서관 진흥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

아울러 올해에는, 도서관 진흥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을 신설했다. 우수 지자체 부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시부)과 전라남도 장성군(도부)이, 우수 교육청 부문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각각 선정되었다. 위원장 특별상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 수,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 수, 1인당 자료 구입비와 1인당 대출 권수의 4가지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도서관을 시상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 3,000여 명의 도서관인들이 모이는 행사로서 올해 53회째를 맞이한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종마크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게 된다.

이경 기자

해바라기

경현수(1945~)

담장 너머 발끝 들고, 고개 처든

먼 빛살의 고향

붉은 담벽에 기대어 있는 둥근 꽃

노랑저고리

한세상,

바람서방 한번 못 따라가고

비 내리는 날 제 그림자에 젖고 있다.

해바라기는 여름철에 노란 빛으로 활짝 핀다. 씨는 먹기도 하고 식용유로 짜기도 한다. 시인은 바람부는 날 임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이다. 한평생 가택연금이라 움직일 수가 없다. 추적 추적 비 내리는 날이면 한없이 고개 떨구고 슬픔에 잠긴다. 어디 해바라기만 입을 기다리며 탈출을 꿈꾸는가. 때로는 평범한 가정의 아나도 남편이나 지식들의 뒷바라지 구속을 벗어나 새처럼 훨훨 날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몇달이고 상상을 타고 망망대해로 떠난 가장을 바라보는 축복한 눈동자나, 힘겨운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축복한 눈동자나,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기리는 축복한 눈동자나, 해바라기의 간절한 소망과 반듯한 길은 단 하나 빛살이다. 해는 해바라기의 일출할 양식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선물운동본부에서 해바라기를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은 여러가지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 인재찬 시인

인터넷게임광고 자주 접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성 1.4배 높아져

게임중독군 청소년 50.9%, 대학생 61.5%가

게임광고에 영향 받는다고 응답

청소년들이 게임광고를 자주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수록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의 정슬기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공중보건학적 모델개발 및 폐해실태조사'(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연구사업(과제번호: HM14C2622))에 따르면 인터넷게임광고가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과 충동성·우울·공격성 등의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청소년 1871명·대학생 50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군이 6.5%이었으며 대학생은 인터넷중독군이 16.3%로 청소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인터넷 게임중독 선별결과 청소년의 6.1%, 대학생의 18.9%가 중독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임광고에 자주 노출됐는가'라는 질문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군의 86.5%가, 대학생 인터넷게임중독군의 81.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중독군의 38.7%와 대학생 인터넷중독군의 45.1%가 지난 한 달 동안 10개 이상의 인터넷게임광고를 접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인터넷게임광고가 자신의 게임이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청소년과 대학생 인터넷게임중독군의 경우는 각각 50.9%와 6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의 광고비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MC미디어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가 지출한 광고비용은 총 1,185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467억원의 2.5배에 달했다.

이중 지상파 TV 광고에 지출한 비용은 740억원으로, 241억원을 지출한 전년 동기 대비 590%가 증가했다. 이는 게임광고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매스마케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터넷중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공중보건학적 모델개발 및 폐해실태조사' 중 인터넷게임광고와 게임중독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중독포럼 10월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중독포럼 10월 월례 세미나

중독포럼이 26일(수)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를 주제로 10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경 기자



이진아 도서관



경동초등학교 도서관

칼럼 | 차성웅 / 우리아이지금이 이사

요즘 TV를 보거나 짧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한글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이런 신조어를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재' 대우를 받는다.

신조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외래어"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조어가 때로는 재치를, 때로는 핫한 사회 이슈와 담론을 담고 있어 사회적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신조어는 대부분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체를 몰라 줄임말이 넘쳐나고 국적 불명의 한글과 영어 합성 신조어가 남용되는 등 한글 파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5년 신조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집한 신조어 사례는 모두 277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혐혐' (여혐 현상을 싫어하고 미워함), '반퇴세대' (조기퇴직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세대), '별조선' (살기 어려운 한국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커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커피를 낮잡아 이르는 말), '걸크러시' (다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여성) 등의 말이 생겨났다.

과격한 표현으로 '~중'과 함께 접두어 '개~'도 다양한 낱말을 만든다. 아주 큰 이익은 '개이익', 아주 재미없으면 '개노잼', 해결 방법이 없으면 '개노답'이다. '개~' 대신 '핵~'을 집어넣어도 뜻은 거의 같다. 다만 뜻된 성인 남자는 '개저씨'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조어의 홍수, 한글을 보호하자

낱말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깎기빠빠' (깎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함),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복세편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세젤귀' (세상에서 제일 귀여움), '얼빠빠' (얼굴에 빠지고 몸매에 빠짐)처럼 줄임 말이 여럿이 인기다. '케바케' (경우에 따라 다름)의 변형인 '사바사'는 '사람 바이 사람'을 줄인 말로, 사람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언어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신조어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빚고 있고, 어떤 관심을 두는지 비추어 준다. 신조어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빚고 있고, 어떤 관심을 두는지 비추어 준다.

대 소 소통단절을 불러올 수 있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인 아름다운 우리말이 뒤떨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관념은 이름을 얻는 순간 그 힘을 가진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수십 번의 고뇌 끝에 내뱉는 한 마디는 말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다.

가벼운 인스턴트 언어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말 사람을 몹소 실천하는 방법으로 평소 각자 쓰는 말과 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칼럼 | 김민정 / 한국NGO신문 기자

사람을 살리는 선플, 사람을 죽이는 악플

지난 15일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입재운군을 위한 선플제단의 선플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입재운군이 사람들의 선플들을 통해 힘을 얻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는 것은 무척이나 놀라웠다.

언어의 권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힘내라는 메시지가 담긴 댓글들을 통해 상황이 호전된 입재운군을 직접 만난 후, 선플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되었다.

사실 악플이라는 단어는 익숙해도 선플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러했었으니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럿 많은 사건사고를 불러온 것이 '악플'이기 때문이라.

악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 배우였던 최지연의 죽음에서부터, 유명

아이돌, 배우, 만화가 등을 방송을 통해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라면 저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결국 이러한 악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자살까지 선택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참기만 하면 연예인들이 고소하는 칼을 꺼내는 일도 생겨났다. 송중기, 박보검, 이민호, 제시카 등 많은 연예인이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가연 씨는 100여 건의 소송을 벌여 오면서 '고소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악플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진다. 연예성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들을 할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와는 별개의 일이라 생각하고 등한

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재에는 그 누구도 악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생이 연락이 되지않아 도와달라고 올린 글에 악플을 달거나 자신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10대 고등학생을 납치하고 폭행한 20대 SNS스타,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 SNS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악플을 받은 학생이 아파트에 투신하는 사건 등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악플이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도를 넘어선 이유 없는 비방과 지속적인 괴롭힘, 상대방의 인격과 가족들까지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깎아내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욕설과 루머로 남을 비하하는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마음으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선플을 달아야 하지 않

을까?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까 하나쯤이야"라는 불만해소나 재미로 인한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글도 관심의 표현이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악플을 달 수도 있지만,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마주친 동양철이 수도 있을 것이다.

선플이 가진 힘도 악플이 가진 힘 못지않을 것이다. 위의 입재운 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입재운군의 사례처럼,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이 가득한 댓글들, '죽어라', '못생겼다' 등의 비난들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댓글을 다는 깨끗하고 따뜻한 댓글창을 기대해 본다.

칼럼 | 정문호 / 서울대 AMP로타리클럽



이제 추석과 추분이 지나고 유난했던 더위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은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혁신을 해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독서야말로 이런 경험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명작은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 이러

한 책은 읽을 때마다 내적성장, 생각의 변화, 환경변화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력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고 하였다. 공자도 논어의 첫머디가 '배우고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하였다.

"재주는 부지런함만 못하고, 부지런 함은 깨달음만 못하다" 우리 조상들이 후학들에게 강조하던 말이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품과 마음을 닦기 위함이다. 내면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이른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원리는 유학의 진면목이다.

우리가 사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너도나도 통찰력을 찾는다. 옛날에는 가진 정보가 많고, 가진 지식이 많으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독서에서 길을 찾는다

여기곤 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 웬만한 정보와 지식은 스마트폰 몇 번만 두드리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통찰력은 책을 많이 읽어야 생긴다. 책만큼 생각을 키워주고 안목을 넓혀주는 것이 없다.

책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지적인 사람'이 되고 책에 난 길을 보여 내 마음에도 길을 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책 만권을 읽어 신령스러운 경지와 비로소 통할 수 있고, 만 리를 여행하여 마침내 세사사를 제대로 따질 수 있으" 중국 북송시대 소동파의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톡, 페이스북 등 그리고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톡, 페이스북 등 그리고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비밀은 독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창의력의 바탕은 상상력이고, 상상력의 바탕은 독서이다.

또한 상상력은 연마와 경험으로 확장된다. 독서로 키울 수 있다. 삶의 경험은 감수성과 상상력을 단련시킨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책임감에 좋은 계절이다.

김현승의 '책' 중에서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가장 기쁠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사 설

한글사랑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지 올해로 570주년.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한 유래는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에 해당하는 날을 추정한 결과, 늦어도 세종 28년 음력 9월 10일까지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

우리말인 한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과해도 될 만큼 국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과 문화다.

제570돌 한글날을 맞아 경상대 국어문화원에서는 '한글 배지 만들기'와 '세종대왕께 편지쓰기' 등 행사를 마련 참여한 사람에게는 한글 엽서를 제공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대중적인 사랑과 존중이다.

한 단채의 설문결과에서 학생의 언어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학생이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의식적 습관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령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가족 간 대화 및 올바른 가정교육'을 꼽았고

570돌 맞은 한글날을 맞아 비속어와 은어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 한글사랑이요 또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까지 결합

청소년의 날과 선플 운동

지난 9월 24일 경기도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시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가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한 지자체인 광명시가 6만 5,000 청소년이 행복토 도시, 꿈을 만드는 청소년'을 지지하는 의미로 9월 24일 '광명시 청소년의 날'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이날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선플청소년상담도 선정하게 되면 인터넷 세상에서도 모범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본다.

이 날 강연에서 밝힌 것처럼 악플의 폐해는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에 긍정에너지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특정일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다.

이날 청소년의 날을 정해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며,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다.

이왕 청소년의 날을 정해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위해 힘을 기울인다면 그들의 세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플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청소년의 날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럼 | 김해빈 / 시인, 칼럼니스트



도 그 가치가 국가와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국보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한다.

우리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보 1호인 송례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보를 가졌다.

국가는 앞날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민국의 국보는 당연히 어린이가 아닐까.

경주양동마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기록유산(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전원 일기, 동의보감, 조선왕조의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문),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무형유산(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철머리 당영등극, 처연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한산모시짜기, 줄타기) 등을 등재 시켰다.

그 양과 가치를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지명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이 태우고 내렸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민국의 국보는 당연히 어린이가 아닐까.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한다.

며칠 전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희생당한 사건은 모두에게 말문을 막히게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겨우 9명의 어린이들이 태워져서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 태우고 내렸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민국의 국보는 당연히 어린이가 아닐까.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한다.

며칠 전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희생당한 사건은 모두에게 말문을 막히게 했다.

칼럼 | 포공영 / 시인

新三綱五倫과 仁義禮智信五德 教育으로 人間性回復 運動을 主唱한다.



이 조짐이 되어가고 있는가? 왜, 非人間化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를 우리는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공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비약적인 소득향상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삶의 질 향상에 눈을 뜬 사람들은 소위 돈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신뢰하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사상이 만연하여 비인간화 현상의 짝을 띄웠다.

둘째 공업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이어 산업전반에 민주화·과학화·정보화 바람이 한 몫 더하여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자유주의, 왜곡된 개인주의, 왜곡된 평등주의, 왜곡된 교육방법이 비인간화 현상에 휘발유를 부었다.

셋째 전통적 국가윤리, 국민윤리, 직장윤리, 가정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자 가족은 가족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위계화되어서

되어 비인간화 추세에 기름을 더 붓고 부채질까지 하였다.

이렇게 비인간화 되어가는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시정 세대들은 예비 어머니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렇게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 가면 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내 손자, 내 나라 이 민족을 이어갈 후손들이 못한 부모처럼 살게 될 수 없지 않은가? 무엇인가? 누군가? 비인간화 되어가는 이 현실을 늦추거나 방향을 돌려 인간성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이다.

人間性回復을 위한 方案으로 新三綱五倫과 仁義禮智信五德 教育을 강화할뿐 아니라 법국민적 차원에서 人間性回復運動을 展開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술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 한 번뿐인 삶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보다 사회, 사회보다 기업, 기업보다 가족, 가족보다 나 개인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할 사회 환경이 더욱 더 매미로 각박하게 변질

년들에게 교육한다던 인간성회복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민국의 국보는 당연히 어린이가 아닐까.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한다.

며칠 전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희생당한 사건은 모두에게 말문을 막히게 했다.

Table with 2 columns: Content and Date. Includes contact info for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